

“오팔년(1958년) 개띠들이 살아온 인생이 다 그렇죠. 저라고 뭐 별난 게 있나요.”

동해운수 버스기사 안건모씨(45)를 만났을 때, 그가 던진 첫마디 말은 이랬다. 처음 그를 만나는 사람이라면 그의 말

“삶이 올바를 때 글도 올바르다”

- 버스 노동자 안건모씨 -

글_ 박천홍_ 자유기고가

버스기사이자 《작은 책》 편집장이기도 한 안건모씨는 그야말로 입지전적 인물이다. 어릴 적부터 날뎠을 노동판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잡지 편집장까지 맡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의 '입지전'은 성공과 출세의 사다리를 오르는 게 아니라 아예 그것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렸다는 점에서 남다르다.

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다. 어릴 적부터 날뎠을 노동판에서 잔뼈가 굵고, 버스를 굴리며 세상에 빠 있는 말들을 쏟아내는 그를 보면 지난한 삶을 어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지만 그가 일하는 사람들이 쓰고 만들고 읽는 월간 잡지 《작은 책》의 편집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야기는 사뭇 달라진다. 그렇게 보면, 그는 입지전적 인물일 게다. 하지만 그의 '입지전'은 성공과 출세의 사다리를 오르는 게 아니라 아예 그것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렸다는 점에서 남다르다.



안씨의 본업은 운전기사다. 대화에서 광화문까지 왕복하는 심야 좌석버스가 그의 일터다. 2시간 20분 코스지만 길 이 막히면 3시간이 넘는 일도 허다하다.

하루 2교대로 거의 절반을 버스에서 보내지만, 틈틈이 시간을 쪼개 그의 또 다른 일터 《작은 책》 사무실에 들른다. 매달 이들은 월차를 내고 잡지 마감에 매달린다. 10년 동안 회사와 신경전을 벌이며 겨우 따낸 연·월차 휴가 시간을 고스란히 잡지 편집에 바치는 것이다.

그는 올해 5월부터 《작은 책》 편집장을 맡아왔다. 폐간 위기까지 몰렸을 때 고군분투하며 잡지를 꾸려왔던 변산 농부 윤구병씨의 후임이었다.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며 극구 거절했지만 더 이상 물릴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극우 언론이 판치는 이 나라에서 그래도 정말 우리 노동자가 만드는, 시민들이 쓰는, 농민과 노동자들이 읽는, 그런 월간지 하나는 꼭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 그를 돌아서게 한 것이다.

운명을 바꾼 책 한권

그가 《작은 책》과 맺은 인연은 꽤 오래 전부터다. 1996년 무렵 오전반 일을 마치고 한 신문을 훑어보다 쪽 광고 하나가 그의 눈길을 끌었다. 《작은 책》의 광고였다. 일하는 사람들의 글을 모은 잡지가 있다는 게 우선 신기했다. 게다가 구독료가 1년에 만원이란 것도 반가웠다. 구독신청을 해서 받아보니 철사로 제본이 되어 있었다. 생김새는 허술해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놀라웠다.

“이게 바로 진짜 우리들 이야기로구나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도 글을 써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만 굴뚝같았죠. 어디 글쓰는 게 쉬운 일인가요. 용기를 내 작은 책에서 시작한 '노동자 글쓰기 모임'에 나가면서부터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었죠. 맞춤법이 틀려도 좋으니 현장의 글을 써보내라고 해서 처음 제 글이

실렸는데,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그가 ‘글쓰는 노동자’로 거듭날 무렵, 그의 의식도 막 깨어나고 있었다. 집 근처에 있는 주민 독서실에 들렀다가 우연히 만화책 《쿠바혁명과 카스트로》를 읽고 큰 충격에 휩싸였다.

“미국에 대해 마침내 승리를 쟁취한 쿠바의 민중들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이 책을 바친다”는 글귀는 그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미국의 본질을 깨달았고 노동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눈떴다. “그 책을 읽지 않았으면 지금도 암흑 속에서 살았을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후 그는 스스로 ‘의식화’ 해갔다. 《태백산맥》 《거꾸로 읽는 세계사》 《노동의 새벽》 등의 책을 찾아 읽었다. 책을 고르는 안목도 생겼고 독서량도 늘어갔다. 운전을 하면서 틈날 때마다 책을 읽었다. 글쓰기도 병행했다. 그는 늘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운전대 앞에서 메모를 했다. 빨간 신호등으로 버스가 멈춰 설 때마다 생각들을 적어갔고 집에 돌아와 정리했다. 그에게는 일터와 글터가 동떨어져 있지 않았다.

“글과 삶은 별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별개인 양 배워왔습니다. 억지로 지어낸 글이 전부라고 생각했기에 글쓰기를 멀리해온 거죠. 하지만 그 틀만 깨면 누구나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쓴 글을 보고 처음에는 이게 무슨 글이야 하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오덕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삶과 일터의 세계에서 우러난 글만큼 진실하고 감동적인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 운명 ‘글쓰기’

책임기와 글쓰기는 그의 무기가 되었다. 목숨을 걸고 다녀야 하는 운전기사의 녹록치 않은 환경이 그를 편안하게 놔두지 않았다. 임금문제로 회사에 따지기도 하고 연·월차를 받아내기 위해 해고위협을 감수하면서 싸웠다. 회사에선 그가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1999년 버스 운전기사들의 소식지 《버스일터》를 창간할 무렵 그는 괴한들에게 두 번씩이나 테러를 당하기도 했다.

“10년 넘게 회사와 불화하면서 살아오다 보니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거의 매일 같이 전쟁이죠. 회사에선 눈밖에 난 지 오래고 6년째 회사 노조에서 제명된 처지입니다. 요즘도 아슬아슬해요. 조금씩 양보하면서 살자는 달콤한 유혹이 밀려올 때도 없진 않지만 잠시뿐입니다. 한번 알고 깨달은 것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 법이죠. 이 싸움에서 버텨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버시기사이자 《작은책》 편집장인 안건모씨

그가 애초부터 반골 기질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운전기사로 불안한 안착을 하기 전까지 그는 날뎠을 노동판을 전전해야 했다. 그에겐 노동이 거의 천형이나 마찬가지였다.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락커냄새로 숨막힐 듯한 의자 공장에 취직했다. 6개월간 일했지만 그가 받은 돈은 3개월치뿐이었다. 그후 신문배달원, 박스공장·자전거공장 노동자를 거쳐 이른바 노가다판에서 데모도(조수)로 온갖 굵은 일을 다해봤다. 무학에 기술까지 없는 탓이었다.

그가 이렇게 노동판 경력이 화려했던 것은 판박이 생활을 견디지 못한 탓도 컸다. 군 제대 후 일곱 번의 낙방 끝에 겨우 대형 운전면허를 딸 수 있었다. 시내버스를 운전하기 전까지 화장지 납품회사, 가구점, 소독차, 자가용 운전기사로 떠돌았다. 1985년 겨울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취직했을 때 집채만한 차를 몬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천직이라고 생각했다. 역마살이 낀 그에겐 제격인 일이었다.

그에게 노동의 고역이 첫 번째 운명이었다면, 글쓰기의 고행은 두 번째 운명이었다. 그러나 그는 글쓰기를 고행이 아니라 다행으로 여긴다.

“삶이 올바를 때 글도 올바르다”는 그의 글쓰기 철학은 머리로 배운 게 아니라 온몸으로 깨우쳐온 것이었다. 그는 머릿속으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고 깨우친 이야기를 쓸 때 세상은 바뀔 것이라고 믿는다. 그의 믿음은 그가 살아온 내력만큼이나 울림이 컸다. **KOVA**